



##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Depicted in the Story of Poor Daughter and Mother(貧女養母)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

저자  
(Authors) 曹凡煥  
Cho Bum-hwan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009.3, 149-177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76156>

APA Style 曹凡煥 (2009).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49-17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3:5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曹 凡 煥\*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三國遺事』 효선편에 드러난 지 |
| II. ‘貧女養母’條의 자료적 검토      | 은의 효성과 그 의미           |
| III. 知恩의 효성에 대한 표창과 그 배경 | V. 맺 음 말              |

[한글요약] 본고는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에 나타난 지은의 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빈녀는 『삼국사기』에는 지은으로 알려져 있으며 효성을 다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열전에 올라 있다. 특히 효성의 주체가 여성이기에 더욱 주목되는데,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을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지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두 기록을 서로 비교해 보면 몇몇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기록을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편찬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반면 『삼국유사』의 찬자는 전해지는 설화를 거의 加減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에 대한 것보다는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의 내용이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서강대학교 박물관

대표논저: 2008,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경인문화사; 2008,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昉의 南宗禪 수용과 활동』,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張保臯의 海上勢力과 華嚴神衆信仰 -천인의 「天冠山記」 분석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32; 2008,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韓國古代史研究』 52 외 다수.

둘째로, 조선시대 만들어진 사서에서는 대부분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불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은 화랑 효종에 대한 것마저 삭제해 버렸다. 반면에 왕의 통치와 관련된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해 둬으로써 효성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왕의 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지은의 효행은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효종왕이 아니었으면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다. 화랑인 효종이 지은과 그의 눈먼 노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것이 왕실에까지 알려져 진성왕이 그녀에게 포상을 포상하였다. 그런데 진성왕이 지은에게 표창하고 군사를 보내어 집을 지키게 할 정도의 많은 배려를 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매우 극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지은에게 많은 시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혼란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효선편의 내용 가운데 지은이 집을 내어 양존사로 하고 출가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녀의 그러한 행동은 결국 효성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효성이란 단순히 모친을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살아 생전에 유교적인 효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종교에 귀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효성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리 빈녀 양모조는 효와 선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문요약] I would substitute a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 by review of a story, a poor daughter and mother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he daughter in the story was also known as Ji-eun in the *History of Three Kingdoms*, who served her mother with great devotion and thus, her act was appraised highly and listed in the series of biographies in the book. Along with her great devotion, her sexuality worked another reason to be listed because the author tried to emphasize filial piety regardless of sexuality.

However, the two books telling same story,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History of Three Kingdoms*, have some differences. In the former book the story was edited to correspond to author's intention, while the author of the later

accepted the original tale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without almost no edition. In this aspect, it is implied the later is more close to the original facts despite its narrative style.

History books compiled in Chosun dynasty authorize *History of Three Kingdoms* and admitted its contents and thus, no buddhist related facts and moreover King Hyojong as Hwarang were included. Contrarily, it highlighted King's supreme power and his reward to Ji-eun rather than her great devotion itself because the reward represents King's sovereign power.

Ji-eun's filial piety was known accidentally by Hyojongrang. He heard about her and her blind mother, and gave financial support. That was informed to King Jingsung and the King rewarded her with house and security guards. However, the King's reward suggests political disorder at that time as well. He awarded Ji-eun a big prize with intention to hide the political chaos.

According to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Ji-eun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which is very suggestive of true filial piety. It means not only supporting parents physically, but also pondering their mind considerably. Moreover, it means confucian devotion during their lifetime and religious devotion after their passing away. That is to say, a poor daughter's story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 tells about filial piety more effectively and dramatically.

[주제어] 효선편(孝善篇), 빈녀양모(貧女養母) 효녀지은(孝女知恩), 구복의 봉양(口腹의 奉養), 양존사(兩尊寺), 진성왕(眞聖王), 효양방(孝養坊), 효선쌍미 신앙(孝善雙美 信仰), 양구와 양지(養口와 養知)

## I. 머리말

『三國遺事』 孝善편은 문자 그대로 효행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眞定師孝善雙美·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孫順埋兒 興德王代·貧女養母 등 5가지의 효선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는 ‘빈녀양모’조의

경우 효성의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선편의 내용 가운데서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빈녀가 눈먼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부잣집에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의 효선편은 효행내지 효성에 대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일찍부터 주목하였다.<sup>1)</sup> 그 결과 일연이 『삼국유사』의 마지막 부분에 효선편을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그리고 각각의 효선 사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sup>3)</sup>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의 폭이 깊어지고 또

- 
- 1) 『三國遺事』 효선편에 대한 연구를 시대순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閔丙河, 1975,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 『人文科學』 3·4.  
李基白, 1983, 「新羅佛敎에서의 孝觀念」, 『東亞研究』 2; 1986,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강진옥, 1985,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국어국문학』 93.  
金杜珍, 1992, 「新羅 義湘系 華嚴宗의 ‘孝善雙美’ 信仰」, 『韓國學論叢』 15; 1995,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金相鉉, 2000, 「三國遺事 孝善篇 檢討」, 『東洋學』 30.  
趙美延, 2000, 「『三國遺事』 「孝善」篇 研究」, 『國文學論集』 17.  
김영하, 2008, 「三國遺事 孝善篇의 이해」, 제30회 신라문화계 학술회의 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 요지문, 2008년 12월 4일. 이하 ‘발표 요지문’으로 약하여 기록한다.
  - 2) 김영하의 논문이 앞선 연구 성과를 담고 있어 크게 참고 된다(김영하, 2008, 앞의 논문, 발표 요지문 참조).
  - 3) 김대성과 향득 그리고 손순의 효행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남동신,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 孝와 善과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그리고 정운용, 『『삼국유사』 ‘손수매아’조로 본 신라인의 효심』 등은 발표 요지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2008, 발표 요지문을 참고할 것). 그리고 尹龍燾, 1978,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 11 및 金琪燮, 2001, 「신라 흥덕왕대 孫順

한 넓어졌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빈녀양모조에 대한 검토는 그다지 많지 않다. 황인덕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것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비하여 검토하였고<sup>4)</sup> 李鍾旭은 신라 하대 骨品制와 王京人의 주거를 살피는 과정에서 빈녀양모조를 살펴보았다.<sup>5)</sup> 또한 전기웅은 眞聖王代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빈녀양모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sup>6)</sup> 그렇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빈녀의 효성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빈녀양모조의 내용을 좀 더 새롭게 검토하여 신라 하대 평민의 효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빈녀의 효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그것들 서로 비교해 보고 후대의 기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빈녀의 효성에 대한 국가의 표창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 효선편에서 빈녀의 효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도 헤아려 볼 예정이다.

---

의 효를 통해 본 ‘表彰’의 의미』,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도 참고된다.

- 4) 黃仁德, 1990, 「<孝女知恩>傳과 <貧女養母>談 一考 -사실의 ‘史傳’·‘史談’적 인식과 서사적 성격-」, 『韓國言語文學』 28.
- 5) 李鍾旭, 1990, 「신라하대의 골품제와 왕경인의 주거」, 『新羅文化』 7.
- 6) 전기웅, 2005,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韓國民族文化』 25.

## Ⅱ. ‘貧女養母’條의 자료적 검토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빈녀양모조의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孝女知恩’條가 바로 그것이다.<sup>7)</sup> 이렇게 보면 지은의 효행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sup>8)</sup>

그런데 두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거의 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9)</sup> 이에 여기서는 먼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A-1. 孝宗郎이 남산의 鮑石亭에서 놀 때 문객들이 매우 급히 달려왔는데, 유독 두 사람만이 늦었다.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芬皇寺의 동쪽 마을에 나이가 스무 살 전후인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부르며 울고 있어서 같은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의 집은 가난하여 걸식하며 어머니를 봉양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금년은 흉년이 들어 문전에서 걸식하기도 어려워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곡식 30석을 받아 부잣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해가 지면 쌀을 싸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고, 새벽이면 부

7) 빈녀의 이름이 知恩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하 서술에서는 지은으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8)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향덕의 경우를 보면 『삼국사기』보다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은의 효행에 대한 것을 두 사서에서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두 기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기웅의 <표 1> ‘효녀지은 조와 빈녀양모조의 비교’가 주목된다(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205 참조). 그런데 씨는 두 기록의 차이점만을 부각하였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жат집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일에 거친 음식은 마음이 편안하더니 요사이 좋은 음식은 가슴속을 찌르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딸이 사실대로 말하였더니 어머니가 통곡하고 딸은 자기가 단지 입과 배를 봉양할 줄만 알고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른 것을 한탄하여 서로 붙잡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고 하였다.

효종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곡식 1천 말을 보냈고, 효종량의 부모도 의복 1습을 보냈으며, 효종량의 많은 무리들도 租 1천 섬을 거두어 보냈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그때 眞聖王이 곡식 5백 섬과 아울러 집 한 채를 하사하고, 군졸을 보내 그 집을 지켜주어 도적을 막게 하였다. 그 坊에 정문을 세워 효양 마을이라고 하였다. 뒤에 그 집을 내어 절을 만드니 兩尊寺라 하였다(『三國遺事』 권5, 효선 제9 貧女養母).

A-2. 효녀 知恩은 韓岐部 백성 連權의 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팔이도 하고 또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다가 봉양하였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어 고달픔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석을 마련하였다. 온 종일 그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여 주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봉양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3~4일이 지나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기를 “지난날의 식사는 거칠었으나 밥맛이 달았는데 지금 식사는 좋으나 맛이 옛 같지 않으며, 간장을 칼날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 어쩐 일 이냐?”하였다. 이에 딸이 사실대로 아뢰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하고 소리를 내어 크게 우니 딸도 울어 그 슬픔이 길가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때 효종량이 놀러 나갔다가 이를 보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청하여 집의 곡식 100섬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었다. 또 종으로 산 주인에게 보상하고 양인으로 만들어 주니 그의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 식 한 섬씩을 내어 도와주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租 500섬, 집 한 채를 내려주고 잡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집에 곡식이 많으므로 빼앗거나 훔쳐 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담당 관청에 명하여 군대를 보내 교대로 지키게 하였고 그 마을을 표하여 ‘孝養坊’이라 하였다. 이어서 표를 올려 그 아름다움을 당나라 황실에 올려 아뢰었다.

효종은 당시 제3재상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 어려서의 이름은 化達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그는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문득 인격이 완성된 어른처럼 보인다.”하고 곧 자기의 형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三國史記』 권48, 열전 제8 孝女知恩).

위의 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기록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서술된 것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다. 우선 지은의 나이가 A-1의 기록에는 20세 전후로 나타나 있고 A-2의 기록에서는 32살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은의 몸 값도 A-1에는 30석으로 되어 있으나 A-2에서는 10여 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은의 모친에 대한 설명에 있어도 A-1에는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지만 A-2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지은에 대한 일을 먼저 알게 된 사람에 대한 차이 등이 찾아진다.<sup>10)</sup> 또한 A-2에는 효녀 지은을 도운 효종랑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이라면 A-1에서는 지은이 살던 집이 절로 바뀌게 된 사연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두 기록의 차이는 金富軾이나 승려 一然이 참고한 자료가 같은 계통의 것이기는 하지만 편찬하는 과정에서 각기 중시한 사항이 달랐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1)</sup>

10) A-1에서 효종랑의 문도들이 지은에 대한 것을 먼저 안 것으로 되어 있지만 A-2에서는 효종랑이 먼저 안 것으로 되어 있다.

11) 李鍾旭은 “진성왕대에 있었던 사건이 서로 다른 계통을 통하여 전하여 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李鍾旭, 1990, 앞의 논문, p. 172). 반면에 尹龍燾은 이와 같은 내용상의 차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또한 A-2의 기록과 달리 A-1에 실린 지은의 효성을 살펴보면 그녀가 몸을 팔게 된 안타까운 내용이 좀 더 잘 부각되어 있다. A-2에는 품팔이도 하고 걸식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몸을 팔게 된 결정적인 내용은 A-1에만 나타나 있다. 즉 내용을 보면 흉년이 들어 걸식마저 어렵게 되자 자신의 몸을 판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A-1에서 어머니 口腹의 봉양만 하고 마음을 살펴드리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있는데, A-2에는 보이지 않는 사항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A-1의 지은과 관련된 설화의 내용이 좀 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sup>12)</sup>

그리고 A-2는 유교적 효행에 대한 포상 사실까지만을 전하고 있는데 반하여 A-1의 효선편은 지은의 효행을 불교에까지 연결시켜

---

편찬시 참조하였을 원전상의 차이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尹龍燦, 1978, 앞의 논문, p. 53). 김영하도 윤용혁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김영하, 2008, 앞의 논문, 발표요지문, p. 24). 또한 정구복은 “두 사서의 내용상의 차이점은 편찬자 자신들의 의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한 자료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따라서 두 사서에 문헌 자료를 이용해 적은 내용 중국가적·공적인 사건의 발생 연월, 사건의 주체, 사건의 처리과정, 결과 등에 있어서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보다 사료적 신빙성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鄭求福, 1987,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一然과 三國遺事』, 『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p. 302). 그러나 자료가 같은 계통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줄거리는 거의 같기 때문이다.

- 12) 전기웅은 “『三國遺事』에서의 지은이라는 인물과 효행에 대한 묘사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술과 이야기의 전개도 『三國史記』에 비해 허술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현실감이 있고 정황의 묘사도 상세하여 편찬자에 의해 정돈된 『三國史記』의 내용보다 설화의 본래 모습을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204).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A-2의 기록인 『삼국사기』의 서술에는 불교적 색채가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는데 비해, A-1의 기록인 『삼국유사』는 포상을 받은 후 불사를 건립한 사실을 특기함으로써 지은이 불교와 관련이 깊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13)</sup>

『삼국사기』가 불교적인 것을 배제한 것은 편찬원칙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삼국유사』와 달리 이 책에서 지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父親에 대한 이름 및 출신 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적어 둔 것은 편찬원칙을 철저히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렇게 보면 『삼국사기』에 실린 효녀 지은의 내용은 큰 태두리에서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원자료에 대한 수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은과 관련된 것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효종이 아니라 그 문객인 낭도들이었기 때문이다.<sup>16)</sup> 따라서 효녀 지은이 포상을 받은 후 불사를 건립한 것을 특기하였다고 한 지적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전해지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싶다.

- 
- 13) 盧鏞弼, 1994, 『新羅時代 『孝經』의 受容과 그 사회적 의의』,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2007,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究』, pp. 237~238 참조.
- 14) 김영하는 “향덕과 지은에 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의 차이는 편찬 의도에 따른 침삭의 결과일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영하, 2008, 앞의 논문, 발표 요지문, p. 23).
- 15) 향덕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향덕 기록보다는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향덕의 기록이 더욱 정확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 16) 李鍾旭은 낭도들이 지은의 일은 전한 것이 사실과 가깝다고 하였다(李鍾旭, 1990, 앞의 논문, p. 172).

신라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 迺滄 武林의 아들 慈藏은 부모가 일찍 죽고 세속에 관심이 없어지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한 인연으로 자신의 전원을 희사하여 元寧寺로 삼았다.<sup>17)</sup> 물론 귀족들이 불교와의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생가를 불사로 희사한 일은 일반민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 효선편을 보면 흥덕왕때의 사람인 孫順이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弘孝寺를 창건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은이 살던 집을 희사하여 兩尊寺라는 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손순이나 지은과 관련된 기록은 일연이 불교적으로 윤색하였다고 보아지지 않는다.<sup>18)</sup> 이는 당시까지 전해오던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만들어진 두 사서에서 같은 사실을 각각 달리하여 남겨둔 것은 유학자나 승려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에 대하여 그만큼 관심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만 『삼국사기』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삼국유사』에서 효선편을 설정한 것은 고려시대 유교의 세력이 커져가면서 불교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어떻든 두 사서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

17) 『三國遺事』 권4, 慈藏定律.

18) 임재해는 1990, 『손순매야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1, p. 239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다.

19) 閔丙河, 1975, 앞의 논문, p. 233 및 金相鉉, 2000, 앞의 논문, p. 170. 한편 신라시대 당시의 현실에서 유교의 비판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는데, 李基白, 1986, 앞의 논문, pp. 284~285 및 金杜珍, 1995, 앞의 논문, p. 254가 참고 된다. 그렇지만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효선편을 설정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었다는 것은 고려에서 효의 중요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효녀 지은’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기록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찾아지고 있다. 그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래의 사료인 『東國通鑑』의 내용이다.

A-3. 효녀 지은을 閭門에 旌表하였다. 지은은 韓岐部 백성 連權의 딸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보살피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봉양할 수 없게 되자, 품팔이도 하고 더러는 다니며 구걸까지 하여도 봉양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래서 부잣집에 찾아가 자신을 팔아 종(婢)이 되어, 낮에는 그 대가로 일을 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렇게 한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지난 번에 네가 나에게 밥을 줄 때에는 거칠긴 해도 맛이 있더니, 지금은 점점 좋아지는데도 간장이 찢리는 듯하니, 이 어찌 된 일이나?”하니, 딸이 사실대로 고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종이 되게 하였으니,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하고는 이에 크게 통곡하니, 딸도 통곡하였다. 郎徒 孝宗이 이를 의롭게 여겨서 곡식 1백 석을 주고, 또 그 빛을 갚아 품팔이에서 면하게 해 주었다. 낭도 1천 인이 각각 곡식 1석씩 내어 주니, 왕도 또 租 5백 석과 집 1區를 하사하고, 그 마을을 정표하여 孝養坊이라 하였으며, 그 집에 조세를 면제하였다. 여주는 또 효종을 가상히 여겨 헌강왕의 딸로 그 아내를 삼게 하였다(『東國通鑑』 권11, 신라기, 진성여주 11년).

위의 『東國通鑑』의 기록을 보면 불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언급하

---

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현실보다는 고려시대의 현실을 담기 위해 신라인들의 효행을 적어 둔 것이라 보아진다.

지 않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으나 A-2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효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 다만 국왕이 旌表를 내렸다고 하는 것을 冒頭에 두었는데 이는 유교적 입장에서 효행에 대한 국왕의 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아마도 국왕의 통치 행위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sup>20)</sup>

효녀 지은의 얘기는 『동국통감』외에도 조선시대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A-4. 韓岐部 사람인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여 나이 32세가 되어도 시집가지 아니하였다. 어머니를 봉양할 재산이 없어서 남의 고용살이와 구걸로써 봉양하였다. 날이 갈수록 困乏하여 부자집에 몸을 팔아 백미 10석을 받고는, 온 종일 勞役하고 저물면 밥을 지어 가지고 돌아와 봉양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날의 음식은 비록 험식이나 달더니, 지금은 비록 좋은 음식이나 가슴이 찌르는 것 같으니 무슨 까닭이냐?”하였다. 딸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로 하여금 남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속히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고, 곧 통곡하니 딸도 또한 울었다. 孝宗郎이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돌아가 부모에게 청하여 쌀 백석과 의복 등 물건을 실어 보내었다. 몇 천 명이나 되는 화랑도들이 다투어 곡식을 보냈다. 임금이 듣고 또한 벼 5백 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였으며, 다시 군사를 보내어서 곡식을 지키게 하고, 그 마을에 勝을 붙여 孝養里라고 하였다. 이에 당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황제의 덕화에 아름다움을 돌리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21권, 경주부, 효자 신라 지은).

조선시대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 『삼

20) 정운용, 2008, 앞의 논문, 발표 요지문, p. 84 참조.

『삼국사기』의 내용을 옮겨 적은 듯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경주 지역의 ‘인물’인 효자 서술 부분에 채택함으로써 사찰 연기와는 상관없는 표창관계로만 서술을 끝내고 있다. 이는 그 시대에 조선 초기 유교적 이념의 강화와 함께, 이미 관심의 방향이 변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1)</sup> 그것은 ‘당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황제의 덕화에 아름다움을 돌리었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왕실에 표문을 올려 그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국 황제의 덕화(仍奉表歸美於唐室)를 거론하고 있음을 통해 더더욱 잘 알 수 있다.

### Ⅲ. 知恩의 효행에 대한 표창과 그 배경

A-1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지은은 흉년이 들어 가난이 닥치자 몸을 부잣집에 팔아 노비가 되고 그 대가를 받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지은은 눈먼 모친에 대한 봉양을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팔아 남의 집의 노비가 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파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고, 스스로 몸을 판 경우도 적지 않다.<sup>22)</sup> 그렇지만 지은이 부잣집에 몸을 팔아 노비가 된 것은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21) 강진옥, 1985,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국어국문학』 93, p. 154.

22)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의 노비의 발생에 대하여는 高慶錫, 1992, 『三國 및 統一新羅期の 奴婢에 대한 고찰』, 『韓國史論』 28을 참조할 것.

23) 중국에서도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판 경우가 찾아진다. 한나라의 董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러면 지은의 그러한 행동이 당시 신라에서 효 사상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권장과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유교의 효가 국가적으로 크게 권장되었다고 한다. 경덕왕대 신라는 『孝經』을 널리 펴서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추구했다고 밝혀져 있다.<sup>24)</sup>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효녀 지은의 효행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판 경우는 지은을 제외 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해가 들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자 스스로 몸을 판 경우는 있지만 효행을 매개로 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민 신분의 여인이 스스로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일반 평민들에게까지도 효의 사상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sup>25)</sup>

---

서 장례식을 행했고, 뒤에 천인을 안내로 맞아 같이 옷감을 짜서 빗을 갠었다(道端良秀 지음, 목정배 역, 1994, 『불교의 효 유교의 효』, 불교시대사, p. 107).

24) 김수태, 2008, 앞의 논문, 발표 요지문, p. 59.

25) 김기섭은 “홍덕왕대 손순에 대한 표창은 바로 효의 이데오로기화를 위한 상징적인 연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손순에 관한 표창 사실을 중앙의 사신을 파견하여 각 지방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의 촌락민들은 중앙에서 보내온 손순의 효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며, 비록 어려운 가운데라도 부모에 대한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효의 이데오로기화는 이러한 가운데 형성되어 갔다.”고 하였다(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 417).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효에 대한 인식은 고려시대에 가서야 가능했다고 생각된다(尹龍燻, 1978, 앞의 논문, p. 55 및 李熙德, 1998, 『韓國에 있어서 孝思想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思想史學』 10 참조).

지은의 경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눈먼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모친의 눈이 먼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지은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다면 농경이나 기타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은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녀의 집안은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생활은 곤궁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일찍부터 노동에 종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더 나빠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식으로 연명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기근이 들자 결국 그녀가 택한 것은 몸을 팔아 남의 집의 노비가 되는 것이었다. 진성왕대 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는 가운데 눈먼 노모의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은이 부잣집에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게 된 것은 효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장려책에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지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품 신분의 경우에는 국학에서 공부하면서 『효경』에 대하여 배웠다고 하지만 평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더구나 평민 여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음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눈먼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팔아 남의 집의 노비가 된 것은 유교적인 효행의 배움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가에서 효를 이념화한 이유가 농민들로 하여금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가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가족의 해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실제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은의 효행은 국가적인 장려책과 일치하는 행

동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효행을 강조하는 국가의 장려책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지은이 부잣집에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한 사실이 왕실에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진성왕의 표창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다. 기록들을 얼핏보면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1과 A-2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에서 지은에게 표창을 하게 된 계기는 효종량을 돌려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지은과 그녀의 눈먼 모노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은 효종의 문객들이었다(A-1의 기록). 그들은 효종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모녀의 광경을 보고 그 사정을 들었다.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문객들은 효종과 약속한 시간을 어겨 늦게서야 도착하였고, 효종에게 그러한 사정을 얘기했다. 이에 효종은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 곡식과 의복을 지은에게 보내었다.<sup>26)</sup> 그리고 부잣집에 팔려간 지은의 몸값을 갚고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야 여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이에 여왕은 조 5백석을 내려 주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군대까지 보내주었다. 더 나아가 역까지 면제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성왕은 효종량에 대한 포상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효녀 지은이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것은 효종량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효종량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대로 묻히게 되었을 것이고 지은은 부잣집 종살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효종이

26) 『삼국사기』에는 지은에게 곡식을 보낸 사람이 효종량의 부모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그것이 효종량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종욱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욱, 1990, 앞의 논문, p. 172).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효종량이 부모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지은에게 곡식을 보낸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헤아려 볼 때 서로 보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은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노성한 덕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A-2 기록). 물론 이러한 판단은 진성왕이 한 것이지만 효종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골 신분으로 일찍부터 유교 경전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효종의 행동은 『효경』을 일찍부터 접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면 어떨까 싶다.

그런데 진성왕이 지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하는 것이다.<sup>27)</sup> 이미 효종과 그의 부모 그리고 낭도들이 보낸 곡식도 많은 양이라 할 수 있는데 지은에 대한 시혜의 조치를 취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가에서 기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B.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오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국용이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별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元宗·哀奴 등이 沙伐州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奈麻 舍奇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三國史記』 권11, 진성왕 3년).

진성왕은 국가재정이 고갈되자 지방에 사신을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였다. 하지만 지방민들은 조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sup>28)</sup> 그러나 계속되는 독촉은 결국 지방민의 봉기로 일어나게

27) 윤용혁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대왕을 정강왕으로 이해하고 있고 김기섭은 지은의 일을 定康王代로 이해하고 있는데(윤용혁, 1978, 앞의 논문, p. 53 및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 406) 이는 잘못된 것이다.

28) 당시 일반민들이 조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權英五, 2007, 「진성여왕대 농민 봉기와 신라의 봉기」, 『新羅史學報』 11, pp. 238~249 참조.

되었다.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반란군의 위세가 너무 커서 관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진성왕대의 정치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성왕대 납세를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실제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보다 많이 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 거부의 주역들은 아마도 자영농이었을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이들이 반란에 가담한 것은 경제적인 수취가 매우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과 더불어 소작농들도 반란에 참가하였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왕경의 경제적 사정은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은과 같이 걸식으로 지탱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 먹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만큼 왕경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지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부잣집에 스스로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은의 예는 하나에만 그친 것이 아닐 것이다. 왕경의 적잖은 민들이 지은과 같은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는 왕경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시기에 지은의 효행이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자 지배층은 이 절호의 소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sup>30)</sup>

진성왕까지 나서서 노비로 전락한 여인을 구휼하고 효양방이란 이름까지 내려 준 것은 진성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양

---

29) 洪承基, 1989, 『後三國의 분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韓國史市民講座』 5, p. 66.

30) 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219.

방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은 지은 이외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은의 효행에 대한 포상은 왕이 덕치의 규범을 보이고 대민교화를 지향함으로써 계속되는 재해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민심 이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취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미 신라는 몰락이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한기부의 일반 평민이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왕경인들 가운데 평민들 대부분은 굶주림속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성왕대 일어난 재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지은의 얘기가 전해지자 이를 표창한 것이다.<sup>31)</sup> 특히 혼란기에 접어든 신라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바로 지은의 효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사실 『삼국유사』에 실린 손순이나 향덕에 대한 표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손순이나 향덕 그리고 지은에 대한 표창은 흉년이나 기근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효를 선양함으로써 민을 교화하고<sup>32)</sup> 개별 가호의 건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sup>33)</sup> 지은의 효행에 대한 국가의 표창은 실질은 숨기고 그 드러난 표면적인 것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여왕은 지은의 효행을 당나라에 표문을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 여왕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한 사람의 필부라도 효행을 실천하였을 때 이를 국사에 기록하고 표창하였던 당나라의 예를 따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성왕은 지은에게 내려준 곡

31) 전덕재는 효녀 지은이 포상을 받은 시기를 진성왕대 초기로 이해하고 있다(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p. 402).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2) 尹龍嫻, 1978, 앞의 논문, pp. 51~52.

33) 金琪燮, 2001, 앞의 논문, p. 414.

식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적들이 왕경에까지도 횡행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만큼 진성왕대 신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효녀 지은의 얘기를 듣고 그녀를 위하여 곡식을 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군인까지 보낸 것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의 모순을 덮어 두려는 불손한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三國遺事』 효선편과 지은의 효행

이제 진성왕대 지은의 효행을 검토할 때 남는 문제가 있는데, 그녀의 효성이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A-1의 기록에서 지은이 국가로부터 받은 집을 절로 삼고, 부모를 기리는 양존사로 이름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A-2의 기록에서는 유교적 효행에 대한 포상 사실까지만 전하고 있는데 비하여 『삼국유사』 효선편은 지은의 효성을 불교에까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일연은 지은이 국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교적 효행의 실천에 있기 보다는 불교적인 효에 의한 것으로 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효선편의 설정이 결국은 유교의 孝道와 불교의 修道를 조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신앙에서의 불에 대한 선, 즉 세속적인 윤리와 종교적인 신앙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이었다.<sup>34)</sup> 그런 만큼 선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결국에는 집을 희사하여 불교에 귀의한 만큼 ‘선’에 대한 부분도

34) 李基白, 1986, 앞의 논문, p. 278.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일연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은과 관련된 것을 효선편 마지막에 적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 효선편에 지은에 관한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sup>35)</sup> 이기백은 효선편에 기록된 5조목의 이야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손순과 지은의 이야기를 ‘효도로 인하여 현세적인 복을 받고 佛道에 귀의한 이야기’로 보았다.<sup>36)</sup>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손순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은의 경우에는 진성왕에게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향득의 효행과 같은 것으로 분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향득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왕에게서 효행에 대한 상을 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은의 경우에는 현세적인 복과 왕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 그리고 불도에 귀의한 이야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효선편에 실린 효성의 주체 가운데 모든 것을 충족시킨 인물이 바로 지은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35) 김영하는 “『삼국유사』 효선편은 평민이 모친 위주로 효와 선을 아울러 이룬 사례에 주목함으로써 유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영하, 2008, 앞의 발표 요지문, p. 28). 또한 김두진은 “『삼국유사』 효선편의 내용은 김대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서민 대중과 얽힌 이야기로 꾸며져 있으며, 김대성도 牟梁里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가난한 서민이었다.”고 하였다(김두진, 1995,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p. 270). 그렇지만 효선편이 평민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김대성의 효와 관련된 핵심은 그가 진골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드러나 있고, 향득의 경우도 비록 지방민이기는 하지만 사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효선편에 실린 인물들의 신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6) 李基白, 1986, 앞의 논문, p. 282.

그런데 『삼국유사』 효선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은의 효행이 맨 나중에 설정되어 있다.<sup>37)</sup> 지은의 효행이 제일 나중에 언급된 것은 효성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다른 효성의 사례들은 전부 남성인데 비하여 지은은 여성의 신분이기 때문이다.<sup>38)</sup> 그렇다고 해서 지은의 효성이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 뒤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지은을 맨 뒤에 배치한 것은 가장 낮은 신분층의 효행을 통하여 신분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아진다.<sup>39)</sup> 그것은 진정<sup>40)</sup>과 지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진골 신분에서부터 두품 신분에 이르는 소유자<sup>41)</sup>라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던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42)</sup> 그러면

- 
- 37) 효선편에 실린 인물들을 살펴보면 시간순으로 입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은이 나중에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8) 사실 지금까지 봉양의 주체보다는 봉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향덕의 경우만 부친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모친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봉양의 주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9) 지은이 부잣집에 몸을 팔아 노비가 되었기 때문에 효선편에 실린 인물 가운데 제일 신분이 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남의 집에 몸을 팔아 평민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 40) 효선편에 진정을 제일 앞에 둔 것은 그가 승려였기 때문에 일연의 일정한 배려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41) 孫順의 경우에도 그가 지극히 가난한 가문의 출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손순이 평민이어야 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李基白, 1971,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 2; 1974, 『新羅政治史會史研究』, 一潮閣, p. 55).
- 42) 최정선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윤리적 덕목으로써의 효행이라는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여성들까지

이제 지은이 눈먼 노모에게 행한 효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서 보았듯이 지은이 효도를 하는 방식을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측면이란 자신의 몸을 팔아 남의 집의 노비가 된 것을 말한다. 『삼국사기』에는 ‘就富家請賣身爲婢’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贖賃他家’로 되어 있다. 후자의 기록에 따를 경우 贖賃은 바로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일정한 댓가를 받는 용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비록 두 기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용작민의 노비화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44)</sup> 결국 지은은 용작민에서 부잣집의 종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는 양인 신분을 다시 찾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은이 부잣집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고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현재의 출퇴근 하는 정도의 종살이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지만<sup>45)</sup> 이는 좀 특별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잣집에서 부리는 노비가 저녁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은 쉽사리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눈먼 모친의 봉양을 위해 주인 집에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의 집의 노비가 되

---

흡수, 사회 질서 안에 편입시키려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효행이라는 대사회적 윤리덕목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의 자기희생을 요청하였고, 과도한 희생은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여성을 효녀라는 칭송의 대상으로 미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시사해준다.”고 하였다(최정선, 2005,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 p. 162 참조).

43) 金昌錫, 1991,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5, p. 82.

44) 金昌錫, 1991, 위의 논문, p. 82.

45) 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 207.

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인집에 예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평민들의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효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지은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A-1). 그것은 노모의 봉양을 위해 몸을 판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몸을 팔아 남의 집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비록 그 대가로 좋은 음식으로 노모를 봉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효선편에 실린 진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진정이 어머니 때문에 출가를 미루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비록 살아서 풍성한 음식으로 봉양한들 어찌 효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말은 봉양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다만 음식만 잘해 만들었을 뿐이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편하게 살피드리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모녀가 서로 붙잡고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질적인 봉양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편안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사실 효행 설화에 있어 효행의 방법으로 언급되어 온 養口와 養志는 진정한 효의 개념으로 볼 때 서로 대등하게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지’의 효에는 ‘양구’가 포함되기 때

46) 박영주, 1997, 「孝行說話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 -가난의 문제를 중심으로-」, 『陶南學報』 16, pp. 158~159.

문이다.<sup>47)</sup>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양구가 없는 효 역시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려준다. 자신을 희생시켜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정성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돌려 말하면 효녀 지은에게는 효를 행하려는 마음의 진정성은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살피지 못하는 편협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의 올바른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효는 부모의 구복만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심리까지 살피고 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sup>48)</sup>

한편 지은은 살던 집을 회사하여 사찰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이기백은 손순이나 지은이 모두 불교 신앙에 귀의하여 출가한 듯하다고 하였다.<sup>49)</sup> 지은이 출가하였다고 하는 해석을 따를 경우 그녀는 왜 그러한 일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지은은 구복만이 진정한 효행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행을 마지막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집을 절로 바꾸고 양존사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지은이 살던 집을 회사하여 만들 절이 양존사라 하였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우선 사찰의 이름이 양존사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兩尊’이란 ‘兩足尊’의 줄임말로 『法華經』 「方便品」에 ‘無上兩足尊 願說第一法’이라 하였다.<sup>50)</sup> 다시 말하면 부처

47) 趙美延, 2000, 앞의 논문, pp. 203~204 참조.

48) 최정선, 2005, 앞의 논문, p. 166.

49) 李基白, 1986, 앞의 논문, p. 285.

50)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編, 1999, 『漢韓大辭典』 2, p. 140.

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말로 지혜와 복 두 가지를 겸비했다는 말이다. 이는 효녀 지은이 養口만의 효가 아니라 이에 앞서 養志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로 인해 복을 받았기에 효녀 지은의 지혜와 복을 즉, 양존을 기리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그렇다면 지은이 불교에 귀의한 이유에 대하여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不思議光菩薩所說經』에는 효친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 갖가지 음식과 여러 진귀한 보배로 공양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요,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법으로 향하게 하여야만 은혜를 갚음이라고 한다.<sup>52)</sup>

위의 기록을 보면 갖가지 음식과 진귀한 보배로 공양하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도리어 거친 음식과 진귀한 보배가 아니더라도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지은은 결국 궁극적인 효를 실천하기 위하여 출가하고 집을 내어 양존 사라 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정법의 길을 견도록 하였던 것이다. 비록 지은의 눈먼 노모가 살아 있을 때 불교에 귀의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은은 모친이 돌아가자 집을 내어 절을 삼고 부모를 위하여 정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은이 궁극적인 효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삼국유사』 효선편 가운데 지은의 이야기는 효와 선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선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은은 모친을 봉양하여 효도를 하였고 모친이 돌아가자 살

51) 趙美延, 2000, 『『三國遺事』 「孝善」篇 研究』, 『國文學論集』 11, p. 214.

52) 若以種種飲食及諸珍寶 種種供養 非報父母恩 若能引導 令向正法 乃名報恩.

던 집을 회사하고 불교 신앙에 귀하였으므로 효와 선을 아울러 갖추게 된 것<sup>53)</sup>이라는 견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일연 선사가 지은 이야기를 맨 나중에 올려 둔 것은 부모의 살아 생전에 유교적인 효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종교에 귀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 말

본고는 『삼국유사』 효선편의 마지막에 실린 ‘빈녀양모’조를 검토한 것으로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빈녀는 『삼국사기』에는 지은으로 알려져 있으며 효성을 다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열전에 올라 있다. 특히 효성의 주체가 여성이기에 더욱 주목되는데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지은에 대한 것을 적어 두었는데, 몇몇 부분에서는 기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기록을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편찬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고, 이에 비하여 『삼국유사』의 찬자는 전해지는 설화를 거의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에 대한 것보다는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의 내용이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사서에서는 대부분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불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더

---

53) 李基白, 1986, 앞의 논문, p. 285 참조.

나아가 어떤 것은 화랑 효종에 대한 것마저 삭제해 버렸다. 반면에 왕의 통치와 관련된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해 둠으로써 효성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포상을 더욱 강조하였던 것이다. 포상의 강조는 바로 왕의 통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은의 효행은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효종랑이 아니었으면 그냥 잊혀질 그러한 것이었다. 화랑인 효종이 지은과 그의 눈먼 노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것이 왕실에까지 알려져 진성왕이 지은에게 포상을 포상하였다. 그런데 진성왕이 지은에게 표창하고 군사를 보내어 집을 지키게 할 정도의 많은 배려를 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매우 극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지은에게 많은 상으로 내린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혼란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효선편의 내용 가운데 지은이 집을 내어 양존사로 하고 출가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녀의 그러한 행동은 결국 효도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효도란 단순히 모친을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살아 생전에 유교적인 효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종교에 귀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빈녀양모조는 효와 선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